



2010년 제1차 이사회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8일 한국전력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김쌍수 대한전기협회 회장을 비롯해 협회 임원 및 감사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제1차 이사회'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09년도 수지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 규정개정(안) ▲ 제45회 정기총회 부의안건(안)에 대해 심의, 통과시켰다. KEA



장학회 이사회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18일 '2010년 장학회 제1차 이사회' 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전차 이사회 회의록, 2009년 장학금 지급 실적 및 기금출현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09년 수지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2010년 장학생 선발(안) ▲2010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선임(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KEA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쌍수)는 지난 24일(수) 15시 한국전력공사(후생동 2층 무궁화홀)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정기총회 회의록과 주요사업실적에 대한 보고와 2009년 수지결산 및 이익잉여금처분(안), 2010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한편, 법인회원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과 개인회원인 서중석(협회 前 전무이사), 이복희(인하대 교수)가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KEA



2010년판 내선규정 발간기념회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17일 박천진 부회장과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판 내선규정' 발간기념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내선규정'은 2005년 전기설비기술기준과 내선규정에 국가표준인 IEC(국제전기표준위원회)표준을 도입했으나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전력산업계에 적용이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IEC표준에 따른 전선의 선정 및 배선방법 그리고 접지방식 등 산업계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협회는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유지관리 전담기관으로 지난 2006년 내선규정 개정판 발간 이후 매년 전력산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신기술·신공법 및 적합성평가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정부에 의뢰, 개정 고시·공고해 왔다.

한편 협회는 내선규정 순회설명회를 오는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개최한다. 25일 한전 광주전남본부를 시작으로 3월 4일 한전 대전충남본부, 9일 한전 대구경북본부, 11일 한전 부산본부, 17일 한전 서울본부에서 열린다. KEA



2010년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4월 7일부터 3일간 제주도(라마다제주호텔)에서 제 '45회 전기의 날 기념'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하고 대한전기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세션운영(전기기술, 발전 및 그린에너지기술, 분산형전원계통연계기술) ▲신기술업체 성공사례 발표 및 전시회 ▲풍력발전 표준화 워크숍 ▲개막행사 / 산업시찰 ▲기술기준 유공자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KEA